**꽁징어**

“나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호용 씨라고 부르겠어요.”

백년해로를 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아내에게 던진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라’는 요구에 아내가 단호한 어조로 내게 한 답변이었다.

다른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춘기 때 개봉한 영화 별들의 고향은 30대가 될 때까지도 나를 많은 영화 속의 장면에 머물게 했었다. 난 당시 다섯 살이나 나이차이가 나는 이성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일상에서 만나는 여성들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호칭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단 번에 깨뜨린 것이 아내였다. 거듭되는 나의 요구에도 아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만남을 시작하면서 나를 ‘호용 씨’로만 호칭했다. 나는 결혼하기 전의 교제기간이 최소한 삼 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두 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겠다는 압박의 수위를 점차 올리는 것과 더불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어머니의 단호함에 더 이상 버티기를 포기하고 교제를 시작한 지 일 년하고 몇 달을 넘긴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1993년 10월 어느 날 서울의 한 야외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할 때 아내의 나이는 스물 아홉이었고 나는 서른 넷이었다. 지금도 아내와 나 사이에 공방이 끝나지 않는 것은 누가 누구를 구제해주었냐는 것이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서른에 접어든 여성들은 결혼상대로서의 가치를 고철에 비유하곤 했던 때이라 나는 당연히 서른을 목전에 둔 아내를 구제해준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아내는 서른 네 살이나 된 노총각을 자신이 구제해 준 것이라는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를 아직도 부리고 있다.

나와 같은 나이 세대의 어렸을 적 가정의 모습은 아버지의 존재가 가정의 중심에 있는 가부장적인 형태였다. 나의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는 아버지께 항상 순종하며 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였기에 나의 아내가 될 사람도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혼하기 전 나는 아내와 이러한 나의 생각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대화가 깊어질수록 아내가 오히려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나와 아내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인 첫 딸도 얻게 되었고 행복이 넘치는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아내의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어머니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던 아내가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내게 피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게 관철시키려는 노력까지 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아내와 나는 서로의 개성에 대하여 비교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아내를 꽁치라고 불렀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보게 된 꽁치의 특성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꽁치는 성질이 고약해서 그물로 잡으면 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아내의 잠재된 개성이야 말로 꽁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 나의 이러한 응수에 맞서 아내는 나를 오징어라고 불렀다. 오징어를 잡고 나서 방심하다가는 먹물세례를 뒤집어쓰기 십상인 것을 보고 오징어 또한 한 성질 하는 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아내와 내가 서로를 꽁치와 오징어라고 부르게 되면서 나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결실인 아이들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꽁치와 오징어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꽁징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와 아내의 첫 째 ‘꽁징어’인 딸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커주는 사이에 아내가 둘 째 ‘꽁징어’를 임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아내는 기뻐하기 보다는 걱정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의 4형제 모두가 다섯 명의 딸을 낳았는데 우리의 둘 째 ‘꽁징어’까지 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여자어린아이의 인구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담당의사도 둘 째 ‘꽁징어’의 성별을 출산하기 전까지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아내에게 두 번째 축복의 선물을 아들로 주셨다. 아내는 안도하는 눈치였으나 정작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제일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한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둘 째 ‘꽁징어’의 고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바람에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다.

첫 째 ‘꽁징어’인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고 있던 나로서는 나의 ‘꽁징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사회로 던져 놓고 어린이로서의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을 볼 자신이 없었다. 선생님들과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아내의 표현대로 오징어의 성질과 닮은 나로서는 더욱 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나의 ‘꽁징어들’에게 어린이답게 생활할 수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불필요한 과외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 일 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준비한 끝에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 입국한 것이 2000년 여름이었고 일과 연결되어 이름도 생소하기만 했던 프레즈노에서 첫 날을 시작한 것이 2001년 1월 1일이었다.

하지만 프레즈노에서 시작한 일이 잘 되지 않아 나는 엘에이 인근 도시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과는 주말에만 만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다. 첫 째 ‘꽁징어’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 째 ‘꽁징어’는 아직 엄마 품에 있어야 했던 어린 나이였던 상황에서 아내를 인도한 곳이 프레즈노 한인장로교회였다. 한국에서 이렇다 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아내였지만 물 설고 낯선 프레즈노에서 프레즈노 한인장로교회는 아내에게 큰 힘이었으며 많은 신도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고 아내도 프레즈노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나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프레즈노에 둥지를 튼 지 올해로 12년이다. 그 동안 나와 아내의 ‘꽁징어들’도 성장하여 첫 째 ‘꽁징어’인 딸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샌 디에고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둘 째 ‘꽁징어’인 아들은 11학년인데 내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키가 큰 아이가 되었지만 얼마 전 아들이 먼저 걸어온 팔씨름 시합에서 내가 아들을 제압함으로 그나마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아내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나도 작년 12월 30일에 최성문 장로님 댁에서 있었던 재정부의 송년모임에 갔다가 새로 부임하신 박광래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순간을 갖게 되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는 내게 많은 교회 신도 여러분들이 안형준 집사님이 남편인 줄 안다는 농담을 하곤 했었다.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아내에게 진 마음의 빚을 조금 내려놓는다.

앞으로도 오징어와 꽁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선물인 두 “꽁징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이다.

2012년 10월 24일에,

안호용